



진리
정의
창조

발행인 조문부/ 주관 한석기/ 부주관 김현민/ 편집장 이영운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濟大新聞

The Cheju Shinmoon

제주시 아라 1동 1번지(690-756) / 전화: 754-2278-9(FAX 756-2204) / 인쇄한라일보사

http://www.cheju.ac.kr/cnunews

총장선거특집호

1

새 천년 첫 총장 15일 선출

“정책중심, 공정선거 이뤄야”

새천년 제주대학교를 이끌어갈 제 6대 총장이 앞으로 10일 후면 선출된다. 오는 15일 있을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 및 제주대학교총장후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중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이하 선관위)는 막바지 선거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대와 달리 외부인사가 등록이 가능했고,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정대 중강당에서 1회에 걸쳐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올해는 등록한 외부인사가 없었다. 6명의 후보등록이 끝난 후 선관위는 지난 11월 25일 후보 자격심사를 마쳤다. 27일엔 임후보자 소견서를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cheju.ac.kr/camp/chongjang>)에 게재했다.

기존 선거 공개토론회 형식이 아닌 미리 질문을 공개해 서면답변 형식으로 치러지는 공개토론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학내구성원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았으며, 오늘 최종 질문서를 공개했다. 15일 오전 9시30분부터는 투표전 후보 당 10분씩 소견발표회가 법정대 중강당에서 있게되며, 소견발표회가 끝나면 투표가 시작된다.

투표는 우선 1차투표 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투표자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1차투표 3등까지만 2차투표를 갖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투표마감은 선관위 위원장이 장내에 입장한 선거인이 투표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예고를 하고 10분 후에 종료를 선언한다.

유권자인 우리대학 전임교수들은 투표시 선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



▲교훈탑앞에서 총장후보들이 새천년 새로운 각오로 손을 맞잡고 정당한 승부를 다짐하고 있다.

이현중 교수는 선관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21세기를 준비할 대학 책임자를 뽑는 행사일 뿐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모두 가꾸고 다진 학교 명예를 틈틈히 다지느냐 아니냐 과열·혼탁한 선거로 기상정치 행태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분수령이 될 중요한 선거”라며 “학연·지연·혈연 등과 같은 연고관계를 과감하게 떨쳐버리며 비도덕적인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로지 후보자의 인품과 학교발전을 위한 역량 그리고 제시된 정책을 비교·평가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연(사회과학학과 2)학우는 “총장선거권이 없지만 우리대학이 명문대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결과는 물론이고 당선된 분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운 기자
yunia@cheju1.cheju.ac.kr

사설

제6대 총장선거에 부쳐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과 다짐

12월15일은 우리대학 제6대총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이나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소위 지식기반사회다.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판이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에 전개될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대학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대학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할 차기 총장이 깊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의 무게는 어느 때 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타대학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극복하면서 21세기 선진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할 우리의 처지고 보면 차기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총장이 되고자 여섯 명의 후보자가 나름대로의 소견과 정책공약을 내걸고 마지막 득표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로 중무장한 교수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귀속적인 연고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설득력 있는 정책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끝까지 공정선거에 임해주기 바란다.

공정한 선거란 개발된 유권자의 의사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당선자를 결정하는 투표에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합리적인 선거관리의 확립과 더불어 후보자의 정책공약 준비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일 것이다. 혈연·지연·학연·종교 등 귀속적인 연고관계에 매몰되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아예 정책 따지기를 외면하는 유권자를 지식인이라 칭해줄 까닭도 없다. 우리가 기상정치관 선거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별로 다를 바 없이 닮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 아니겠는가.

대학경영의 최고책임자인 지도자가 무엇을 정책 목표로 파악해서 제시하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정책과제로 설정해서 실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무엇이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해답인가를 명확히 알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그러자면 차기 총장을 바라는 후보자에게는 우선 대학의 목표가치에 대한 철학적 통찰력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그가 세우는 발전목표나 정책과제 결정에 이른바 명확성과 적실성을 높여 자연히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을 것이다.

제대신문의 ‘정책 인터뷰’ 기획이나 ‘총장선거 특집호’ 발간도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고자 하는 총정이다. 참된 비판과 선택은 정책 차별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따지지 않는 비판과 선택은 자유도 이성도 아니며 자기감정의 통풍작용일 뿐 그 아무것도 못된다. 지식인에 있어서 최대의 반역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일이다. 거듭 정책 중심의 선거를 기대한다. 후보자 모두의 건승을 빌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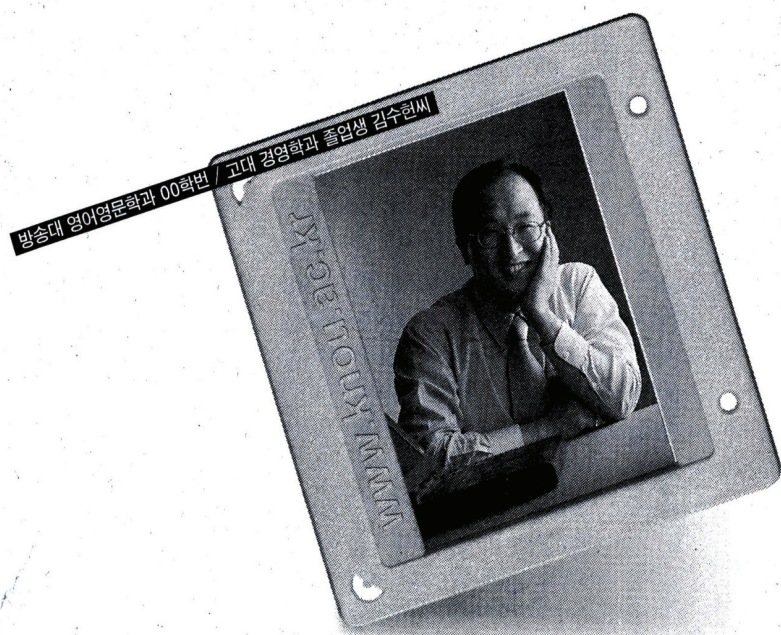
◆총장 후보 홈페이지 및 e-mail주소 (순서는 총장후보대리인 추첨)

고경표 교수 (<http://hi-star.cheju.ac.kr/kpkoh716@cheju.cheju.ac.kr>)
김수현 교수 (<http://onergy.cheju.ac.kr/kshyun@cheju.cheju.ac.kr>)
부만근 교수 (<http://dream.cheju.ac.kr/mkeunboo@cheju.cheju.ac.kr>)
고유봉 교수 (<http://go.cheju.ac.kr/cromis@cheju.cheju.ac.kr>)
홍성락 교수 (<http://jump.cheju.ac.kr/srhong@cheju.cheju.ac.kr>)
김함원 교수 (<http://hope.cheju.ac.kr/hwkim@cheju.cheju.ac.kr>)

선택하는 자신감! 선택받는 내미래!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업그레이드 된 나를 만났다!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학년도에 입학한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편입생 김수현씨」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에 방송대 영어영문학과에 편입했습니다.” (7월14일 KBS 9시 뉴스 인터뷰)
「2000학년도」 입학생 중 편입생 비율은 50% 이상!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대 출신 편입생만 1,251명입니다.

세계 10대 첨단 원격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아태지역 인터넷 교육 솔루션 구축 성공사례」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방송대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세계 첨단 원격대학 TOP10으로 꼽혀 우수대학으로서 그 높은 위상을 인정받았습니다.

21세기 열린학습, 평생학습사회를 여는 대한민국의 「평생교육법」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의 산실 「방송대학」

1972년 국내 최초의 평생교육의 새 장을 연 방송대는 3월 평생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대학 위성TV CUNIL

■ 2001학년도 학생모집안내

지원서	신 입 생	2000. 12. 20(수) ~ 2001. 1. 11(목)
교 부	편 입 생	2000. 12. 20(수) ~ 2001. 1. 20(토)
교 부 장 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내 전 우체국	
지원서	신 입 생	2001. 1. 4(목) ~ 2001. 1. 11(목)
교 부	편 입 생	2001. 1. 15(월) ~ 2001. 1. 20(토)
접 수 장 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의전화	741-8888, 741-8811~5	

※ 합격자 발표: 2001년 2월 12일(월)

You Know? www.kno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경영 혁신, 새로운 바람



고경표
(무역학과 교수)

소견 및 주요공약

대학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 으키겠습니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환경의 급변속에 정부는 이미 대학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사회에 회자되는 연구중심·교육중심 대학에 대한 논의, 교수연봉제와 계약제 등은 구조개혁의 상징적 표현들에 다름 아닙니다.

대학에도 정보화의 물결이 도도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강의실 수업이 새로운 형태의 수업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다. 역동적 리더십으로 제주대 학교의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가운데 국내 첫 사이버 대학교로 '서울디지털대학교'가 내년에 개교되면 대학정보화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2700여개 대학들이 학점교류를 위한 국제간 대학교육 협력방안이 논의되는 등 대학의 글로벌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경쟁력은 더 이상 경제시장의 용어가 아닙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도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어야 하는 엄연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수용인원이 2003년부터는 대학지원자 규모를 앞지르게 되어 강의실이 학생수보다 많아진다는 예측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혁명적 변화가 지금 대학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지역사회도 갈급, 관광 등 기존의 산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구상은 이러한 몸부림의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지역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 갈팡질팡하는 대학행정, 고질적 행정편주의 등으로 무기력과 실망의 소리가 도처에서 감지됩니다. 과연 이 대학이 대학으로서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지 의심케함으로써 제주대학교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약 50년의 성상이 쌓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장기적 비전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위협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불만과 실망이 극에 달하다 못해 이제는 아예 무관심의 상태로 빠져버린 실상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오래전부터 도서관의 책결함이 매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모른척하는 대학도서관행정부서의 난맥상은 우리대학의 현실을 잘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대학 경쟁력을 위해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구성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장래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학경영혁신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바람은 교수님들의 신분과 교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강력히 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자발적 협력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바람은 교수님과 함께 하는 강력한 추진력과 젊은 열정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경영마인드적 실천력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과감하게 급변 총장선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강력한 리더십과 경영마인드적 추진력으로 (1) 대학의 행·재정의 혁신, (2) 획기적 교수연구지원제도의 실시, (3) 대학국제화 전략 추진, (4) 대학수익사업의 확대,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대학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과감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저의 홈페이지에 상세히 하였고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이들 정책중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의 행·재정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대학의 모든 행·재정은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결코 감사나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의 행·재정은 겸허하

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대학교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대학의 행·재정을 연구지원체제로 과감히 개혁하겠습니다. 확실한 대학경영혁신을 통해 선진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진적 행정서비스를 통해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깊게 각인 시킬 것입니다.

특히 대학의 예산운영체제를 대폭 혁신하겠습니다. 현재 국고회계와 기성회계 및 기타 사업부서예산 등으로 사실상 각각 분할 운영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예산운영체제를 통합예산운영체제로 과감히 개편하고, 제로베이스(zero base) 예산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입니다. 통합예산운영체제로 개편될 경우 최소한 5-10%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경영혁신센터'를 총장 직속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이 기구에서 대학 행·재정의 혁신 뿐만 아니라 대학경쟁력의 증진 방안을 도출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획기적 교수연구지원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수의 연구와 교육활동은 대학의 본원적 기능입니다. 이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뿔뿔히 뿔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흑백논리는 당연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교육과 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연구지원체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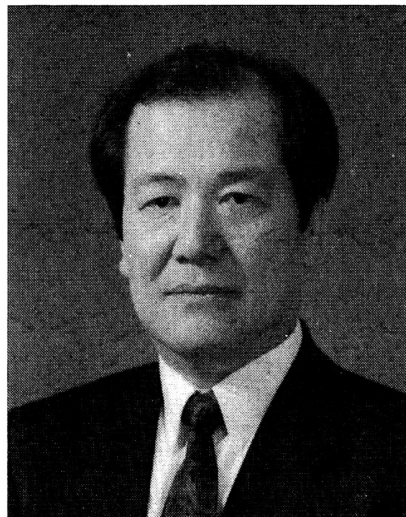
그러므로 교수님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 지원체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교수님들에게 1인당 연간 최소한 300만원의 자체연구비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연구도서기금"을 설치하여 1인당 연간 50만원상당의 도서를 지원하겠으며 그외에도 연구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깨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위기는 새로운 인물을 요구합니다. 젊음의 열정과 강한 추진력에서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역동적 리더십으로 제주대학교의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슴상 앞에서 학생들과 대화

화합 · 개혁, 함께 약진합시다



김수현
(식품공학과 교수)

소견 및 주요공약

화합, 개혁, 그리고 더불어 약진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송고한 사망장으로 교육과 연구에 한평생을 바치신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외람 되지만 총장 임후보의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치열한 경쟁과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제주대학교도 뚜렷한 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갖고 획기적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나오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선진대학 몇곳을 발전모델(bench mark)로 선정해 참고하면서 과감한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제대인 나이가 제주대인 모두

21세기를 선도할 국제 감각과 전문지식, 높은 교양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고, 동북아 중심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선진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

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제주대인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전력투구해야 한다. 인화단결의 기치아래 여러 교수님들의 지혜를 모아, 21세기를 선도할 국제 감각과 전문지식, 그리고 높은 교양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고, 동북아 중심대학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대학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신념을 갖고 다음의 행정철학과 발전구상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

①총장의 결단과 최종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일단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학내 모든 단위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선단 중심형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③상설 대학감사실을 설치해 대학본부는 물론 단위기관별 행정 및 업무추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다. ④인사위원회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정착시킨다.

둘째, 화합과 인화의 행정을 실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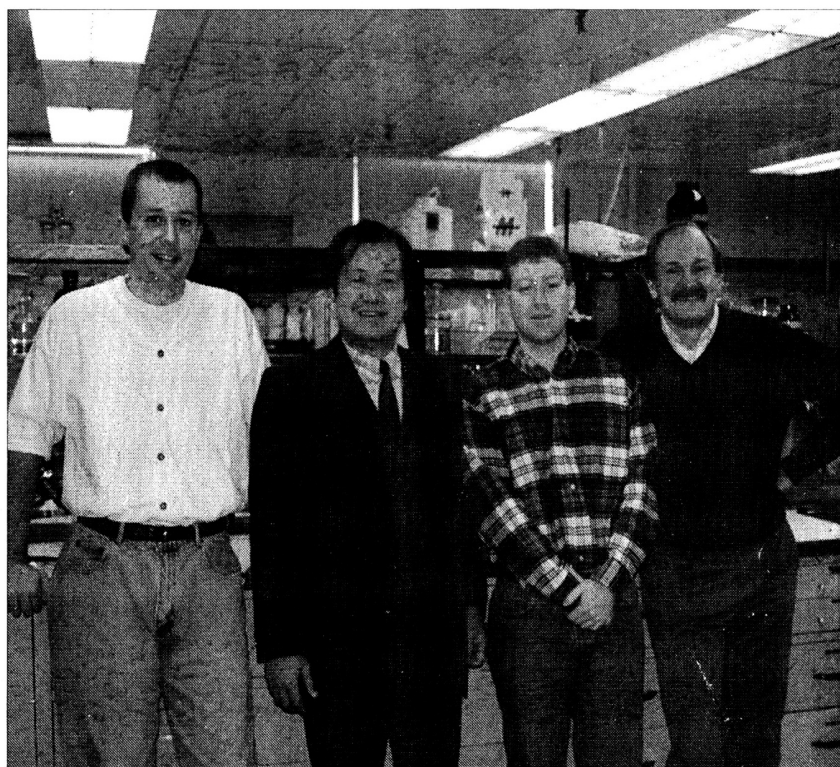
①학교의 중요한 발전정책과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 교수 각자의 전문성과 특기적 소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위원신청제"를 실시한다. ②교원보호와 교직원들의 권익옹호 차원에서, 학내의 모든 갈등 및 분쟁을 대학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칭 "학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조정능력을 발휘한다.

셋째, 제주도민의 사랑과 후원을 받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①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관, 전산계산소, 창업보육센터 등 시민 대상 교육기능을 지닌 모든 부속기관을 확대개편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대학을 지역사회로 넓혀가겠다. ②제주도 내 각 기관 및 기업체가 도민의 교양, 외국어, 문화, 회의산업,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각종 예산이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정치역량을 발휘한다. ③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명실상부한 일급 진료기관으로 발전시켜 의과대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한 봉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 ④동문회 경쟁과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제주대학교도 뚜렷한 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갖고 획기적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나오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선진대학 몇곳을 발전모델(bench mark)로 선정해 참고하면서 과감한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제대인 나이가 제주대인 모두

넷째,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여건의 개선에 힘쓰겠다

열악한 연구여건과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①전공강좌 폐강기준의 조정 및 완화, ②교수 연구실과 강의실간의 network화로 교수법의 다양화 유도, ③실무교육과정 강화, ④학부제의 전면 재검토와 학문의 균형적 발전 유도, ⑤학 교차원의 정부기관과 기업의 연구기금 적극 유치, ⑥10년 주기의 교수 연구년제 전면 실시, ⑦대학원생 목적 장학금제를 통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 ⑧학술연구비 간접경비 배분비율을 최대화하여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 ⑨초과 감사료의 현실화, ⑩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기초과학·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인문사회과학 특수대학원 건립을 추진한다.



▲코넬대학 암연구 실험실에서 동료연구원들과 함께

다섯째, 재정확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

①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모금 주체를 대학본부 집중형에서 단과대학, 학부, 학과, 연구소 별로 더욱 다양화하고, 모금 자체도 선진국형인 사회봉사형, 경영지도형, 산학협동형 모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②재임기간 동안 100억의 발전기금을 마련한다. ③학교 자산의 생산적 전환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대부고 이전 및 매각, 서귀포 부지 매각 및 정문 앞 10만평 부지 확보를 추진한다. ④발전기금 및 부동산의 생산적, 합리적 운용을 통해 유동성 기금을 확대한다. ⑤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관, 전자계산소, 공동실험실습관, 서귀포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확충한다.

여섯째, 선진적 행정서비스 구축에 전력투구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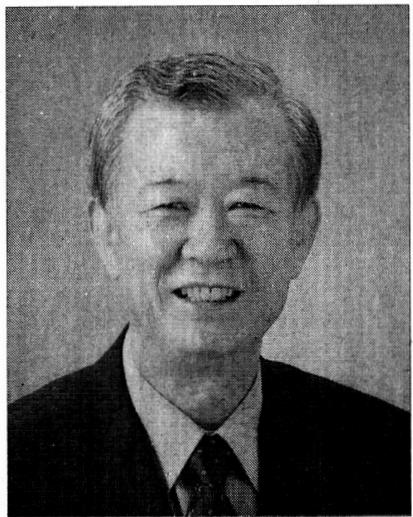
①전자계산에 e-신문고를 설치하고, 교수를 위한 one-stop 종합서비스제를 도입하여 교수 본연의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토록 한다. ②교수정보등록 프로그램(예,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자 정보등록)을 개발하여 성과급, 승진, 타기관 실적보고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수들의 번거로움을 없앤다. ③모든 학과, 전공, 교실(의대)을 한 단위로 인정하여 조교를 배치한다. ④총장 취임후 3개월 이내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학과별 발전계획, 특성화 계획,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⑤야간 강좌부(학생수 총664명)를 위해 2부 대학장제를 신설한다. ⑥여교수의 후생복지와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일곱째,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힘쓰겠다

①교재 개발비 및 교수 개인별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원한다. ②성과급 평가는 이원화(교육과 연구)하며, 학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③기성회 연구보조비를 현실화한다. ④연구실의 냉방 시스템을 갖춘다. ⑤종합문화·스포츠센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종 회의 유치, 예술·문화 공간 제공(상설 전시실), 스포츠 교실 등을 운영한다. 2002년이던 제주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맞는 반세기를 향해 위대한 비전과 포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초 김수현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경영에 전념하는 현명한 총장이 되어 새로운 50년을 향해 뛰는 첫 기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공약사항과 실천방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대학, 거듭나는 대학

“웅비하는 제주대건설”



부만근
(행정학과 교수)

소견 및 주요공약

- 함께 가는 대학, 거듭나는 대학 -

2002년에 개교 50주년을 맞는 우리대학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대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학의 존립기반마저 뒤흔들지도 모를 그러한 도전입니다. 학부제, 국립대학 구조조정, 대학별 기능부여, 특별회계도입, 교수업적평가제, 연봉제, 교수계약제 등 이 모든 도전은 경쟁논리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넓은 관행은 과감하게 바꾸면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개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학내 갈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전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대학의 전체적 분위기는 활력을 잃고 무력감에 젖어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대학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닌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경쟁의 시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외부의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문제는 리더쉽입니다. 누가 이것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큰 능력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단만 그 동안 학내에서 연구와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하여 위기관리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식견과 판단력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중앙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참여를 거치면서 누구 못지 않게 지원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까지 상실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제2의 도약을 위하여 바치고 싶습니다. 이 일을 대학구성원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세우고, 지역사회와 하나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학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넓은 관행은 과감하게 바꾸면서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내의 갈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자질이 있습니다. 총장후보로서 저의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 연구

- 교수와 조교의 조속한 충원 및 교수의 강의책임시수 하향조정
- 연구년(안식년)제도의 확대와 연구 학기제도 도입
- 연구우수교수에 대한 장려금지급 등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 기초학문계열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기금마련
- 특성화분야의 육성과 연구소 활성화
- 우수신입생 유치 및 사이버강의 확대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 학부생의 장학금 확대와 취업대책 강화
-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확대하여 교수 연구의 보조인력으로 활용

(2) 행정과 재정

- 규제중심의 행정체제를 교육·연구 지원체제로 정립
- 본부 처·실간의 업무재조정으로 효율성제고
- 평교수가 다수 참여하는 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 객관적중립의 도입과 고충처리 창구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품질향상
- 대학행정에 여교수의 참여기회 확대
- 예산편성에 교수참여 및 예·결산의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 국고예산의 최대 확보와 기성회계운용의 합리화로 건전재정 도모
- 발전기금 유치의 다변화와 수익사업의 발굴·시행

(3) 인사와 후생복지

- 능력위주의 합리적 보직인사 실현
- 교수와 직원의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확대실시
- 석좌·기금·겸임 교수제도의 활용
- 우수교수 확보를 위한 교원임용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직원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화 도모
- 교수와 직원의 처우를 국립대학 중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개선
-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조기설립과 정상운영을 통해 생활품의 자가구입 실현
- 대학병원의 대학구성원에 대한 진료 우대제도 도입
- 대학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처방전 발급

(4) 시설과 교육환경

- 부족한 교육·연구시설의 확보와 시설공간의 합리적 배치
- 제주의료원의 조기 인수와 제3차 진료기관 신축사업의 병행추진
- 제2학생기숙사 및 '종합문화스포츠센터'의 조기 건립
- 외부 기부를 통한 제2교수회관 건립
- 교수아파트의 개·보수 및 신입교수의 주택난 완화대책 마련
- '디지털도서관' 및 정보인프라를 통한 디지털캠퍼스의 실현
- 대학특성을 살린 캠퍼스 조성사업의 추진
- 주차장을 비롯한 교내 교통문제 해소

(5) 대외교류와 협력

- 국내외 대학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수교류의 활성화
- 국내외 대학과 학생들의 학점 상호 인정제 확대
- 대학과 제주도간에 '공동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상호지원 및 협력강화
- 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형 학·연·산 협력과 교수·학생 창업 지원
- 평생교육시스템의 강화로 지역주민들의 우리대학 가족화

이상으로 총장후보로서 저의 소견을 간추려 말씀드립니다. 차세한 소견과 공약은 제가 개설한 홈페이지 주소 <<http://dream.cheju.ac.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인사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학력

○오현고등학교·제주대 법학과·동국대행정대학원 행정학과·건국대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주요경력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제대신문주간·학생처장·기획연구실장·법정대학장·행정대학원장
○언론중재위원·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실무위원장·행정안전부지방자치추진위원회 실무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제주일보·한라일보 논설위원
◎주요저서
○한국지방자치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과정연구 ○제주지역 주민운동론 ○광복제주 30년.



고유봉
(해양학과 교수)

학력 및 주요경력

○성명 : 고유봉(高有峰)

생년월일 : 1945.11.11(55세)

소속 및 직위 : 해양학과 교수

(해양생물학)

최초임용 : 1971.11.15 ~ 현재(29년)

E-mail : cromis@cheju.cheju.ac.kr

Home page : <http://go.cheju.ac.kr>

○군경력 : 해군중위 만기전역

(1969.2.~1971.5.)

○학력 :

제주제일고(1965)
제주대학 수산학과(1969)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1976, 농학석사)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1979, 농학박사)

○학내 주요경력 :

해양과학대학장
중앙도서관장
해양연구소장
제대신문사주간
○주요 단체경력 :
한국어류학회(현)
(사)제주학회(현)
(사)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현)
○연구논문, 보고서, 저서 : 합계 98편

소견 및 주요공약

공약사항

그 동안 우리 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서 총장은 안으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밖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국제화·정보화를 실현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제주대학교를 즐겁고
힘이 넘치는 대학, 세계
로 뻗는 대학, 열린 지
성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온 정열을 바
치겠다

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자세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는 평소 우리 대학이 멋진 자연 환경과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보다더 성장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문제점들을 가슴 깊이 새겨 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이제는 차분하게 안정을 다지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제주대학교를 즐겁고 힘이 넘치는 대학, 세계로 뻗는 대학, 열린 지성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온 정열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웅비하는 제대건설

목표

- (1)연구·교육을 함께 하는 거점대학
- (2)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지역대학
- (3)태평양시대에 부응하는 중핵대학

방향

- (1)대학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
- (2)대학 구성원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
- (3)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인재교육
- (4)대학재정의 확충과 건전 운영
- (5)웃음이 넘치는 교정과 밝은 환경조성

★ 고유봉 총장 후보자가 제시하는
“웅비하는 제대건설” 비전 7가지 ★

I. 연구분야

- 연구·교육의 거점대학
- 교수 정원의 확대
- 공정한 교수 업적 평가 실시
- 기초 학문분야의 보호
- 연구소의 활성화
- 특성화 분야 적극 지원
- RRC지원 및 SRC, ERC 추진
- 교수 연구 안식년제의 보완정착
- 제대 학술상 제도의 개혁
- 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지원제도 신설
- 교수 창업 적극 지원
- 태평양 연안의 중핵대학과의 Network화
- 도서관 운영의 개선

II. 교육분야

- 입시제도 개선(특수과목 우수자 선발)
- 외국대학과 2+2, 3+1 제도 추진
- 국내의 특히 아시아계 우수 학생 유치
- 계절제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
-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 외과대학의 국내평균수준 조기정착
- 제주의료원 조기인수 및 제3차 진료기관 조기 신축
- 대학원 교육의 대폭 강화(특히 아시아국가 대학원생 적극 유치)
- 학습자료매체 제작지원

III. 행정·재정분야

- 대학행정의 개혁
- 행정편의주의 관행의 개혁과 행정요원의 훈련 기회 확대
- 기성회계 운영의 개혁
- 수익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지원
- 예산·결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
- 교육부 특별 회계 도입안 반대
-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확충(발전기금 100억원 증액 목표)
- 개교 50주년(2002) 기념행사 추진
- 구성원의 의견수렴 확립
- 동문회 활동 적극 지원

IV. 인사·복지분야

- 교수 신분의 안정화 확립
- 국립대학 상위권 수준으로 교수급여상향조정
- 교수 아파트의 신축과 합리적 운영
- 교수복지 지원체계 강화
- 초과 강의수당 증액
- 외국인 교수제도의 활성화
- 학생 복지 시설 확충
- 소비조합의 전면 개혁

V. 정보화 분야

- 각 분야의 정보화를 묶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 정보 기구(전산소, 도서관, 연구지원실 등)의 정보화 기능 통합
- 서비스 중심의 정보화 행정 정착
- 교육·연구분야의 정보화 시스템 정착
- 지역사회에 정보화 지원과 선도

VI. 기본시설·공간분야

- 교육(기본)시설 확충
- 의대병원(제3차 진료기관) 조기신축
- 주차장 문제 해소
-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추진
- 국제학술교류센터 신축 추진

VII. 대외협력·사회봉사분야

- 대학홍보 기능의 강화
- 태평양 시대의 국제화 강화(국제교류부 신설)
- 평생교육원 조직과 운영강화
- 제주 및 재외도민과 연계된 지원프로그램 개발
- 벤처기업의 육성
- 남북대학 학술교류 협력추진
- 지역기관, 단체, 산업체와의 협력강화
- 서울·부산·일본에 연락사무소 개설



▲행정권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들과 함께



▲교정에서 제자들과 함께

화끈한 교섭력, 확 달라진 대학

믿음 희망 확실한 대외교섭력



홍성락
(물리학과 교수)

학력 및 주요경력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이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이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이학박사)

제주대학교 과학교육과, 에너지공학과,
물리학과 학과장,
미국 Purdue University 객원교수,
제주대학교 이공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교무과장,
기초과학연구소장,
자연과학대학장,
전자계산소장,
교무처장

소견 및 주요공약

학문적 전통을 뿌리내린지 어언 반세기, 연구와 교육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졌기에, 오늘의 제주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반세기 열여 일백년의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과 연구여건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다.

도약의 4년, 학문과 교육의 미래를 담아야 할 제주대학교의 참모습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자문자답해 보아야 한다. 우리 대학의 양적인 팽창에 만족할 것인가? 과감한 대학 경영의 혁신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한 눈부신 질적 성장을 이룩할 것인가?

대의 교섭력과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로 대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할 수 있는 총장이 되겠다

날은 새도 양 날개의 무게가 일정해야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평소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으로 누구와도 격의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로 명예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자발적인 노력으로 뛰어난 대외 교섭력과 축적된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진력

을 발휘하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로 대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있고 민주적인 면을 두루 갖춘 사람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총장상이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각인하며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제6대 제주대학교 총장선출 입후보 소견서 내용을 피력코자 한다.

첫째, 재원확보의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뛰는 총장으로써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최대한의 재원확충과 자체 수익사업 개발 등을 통하여 전례없는 획기적인 재원확보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은 대외 교섭력과 추진 능력에 따라 그 규모의 비교 우위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 최첨단 대학병원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제주의료원의 단시일내 인수,개원해야 하며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을 목표로 대학발전기금과는 별도로 범도민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병원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로부터 1,400여억원의 지원금 등으로 건립문제를 해결하여 타대학 운영예산의 압박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특히,의대생들의 임상실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교육이나 임상실습 연구와 지역특성에 따른 질병연구로 인해 한국의학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게함은 물론 제주도내 확실한 3차의료기관의 위상정립으로 막대한 비용이 도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이 커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 운영체계의 구축으로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을 정착시켜야 한다

계약제와 연봉제는 2002년부터 시행될 경우, 우리 대학의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하여 2002년 이후 신입교수에 한해서는 계약제를 실시하되 기존 정년보장 교수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연구경쟁력 강화추진에서는 근무시간의 유연화를 피하고, 교수 1인당 500~1,500만원의 연구비 지급 등으로 연구활동의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재임기간중 기성회 연구비(급여)의 100%인상을 통해 교수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하는 시행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훈련을 통해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고 서비스 정신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하며, 단대별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여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고 서울사무소의 개설과 보건진료소의 신설 등을 추진하고 대학병원 진료비할인

혜택과 실습선을 이용한 교직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후생복지대학의 터전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무한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대학으로써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고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디지털 대학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입체적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학습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래하는 대평양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점대학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하고 그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체제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산학협력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주도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행정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꾀하고, 1교수 1노트북화를 시행함과 동시에 교수연구실 PC는 2년마다 업그레이드화를 추진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의 신속한 대응력을 키워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새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이라는 신뢰감을 심는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학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가치관의 정립과 새 시대에 걸맞는 지식, 창의력은 물론 따뜻한 인성을 두루 갖춘 국제적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서야만 한다. 따라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신입생 모집단위의 재조정은 물론 교과과정 개편시 필수과목의 부활과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멀티미디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아라인증을 실시 하며, 우리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선발기준과 방법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한편, 대학원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입학원고와 무시험 전형형 확대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견서에 밝힌 다섯가지 테마의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우리 제주대학교가 인재를 육성하는 민주대학으로서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메리치 올리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따라서 총장의 자격조건은 이의 실현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점을 새삼 각인하면서 꿈과 희망의 빛을 한껏 선사할 이 시대 진정한 총장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소견서에 가름하고자 한다.



▲연구실에서



김항원
(사회교육과 교수)

학력 및 주요경력

학력:
한림중, 오원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육학박사)

주요경력:
사회교육과 학과장, 사범대학 교무과장,
제대신보사 주간,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평의원회 의장,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제주공개협 공동의장

소견 및 주요공약

존경하는 교수님.

요즈음 들어 우리 제주대학교의 위상에 대해 염려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은 뛰어난 역량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저의 경험적인 진단입니다.

구성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확실한 대외 교섭력으로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개성 있고 신념에 찬 제주대학교를 만들겠다

대학을 혁신시켜야 합니다. 대학을 혁신시켜 교수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와 활력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코 많은 일을 하려고 덤비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학 발전을 위한 큰 일에 심혈을 쏟고자 합니다. 저는 오로지 학교의 구성원들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외교섭력으로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의 리더십으로 개성 있고 신념에 찬 제주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새 희망으로 새 천년의 새로운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김항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I. 교수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읍시다

1. 교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교수연구비 연간 200만원 이상 별도 지급
대학 구성원의 신분과 권리 적극 보호
2. 교직원 복지 개선
교수아파트 신증축 고급복지시설 유치
3. 우수교수 초빙
신임 교수정원 최대 확보 직급 산정
에 관련 경력 최대 반영
신임 교수 조기정착 지원
4. 여교수 채용 확대

II. 연구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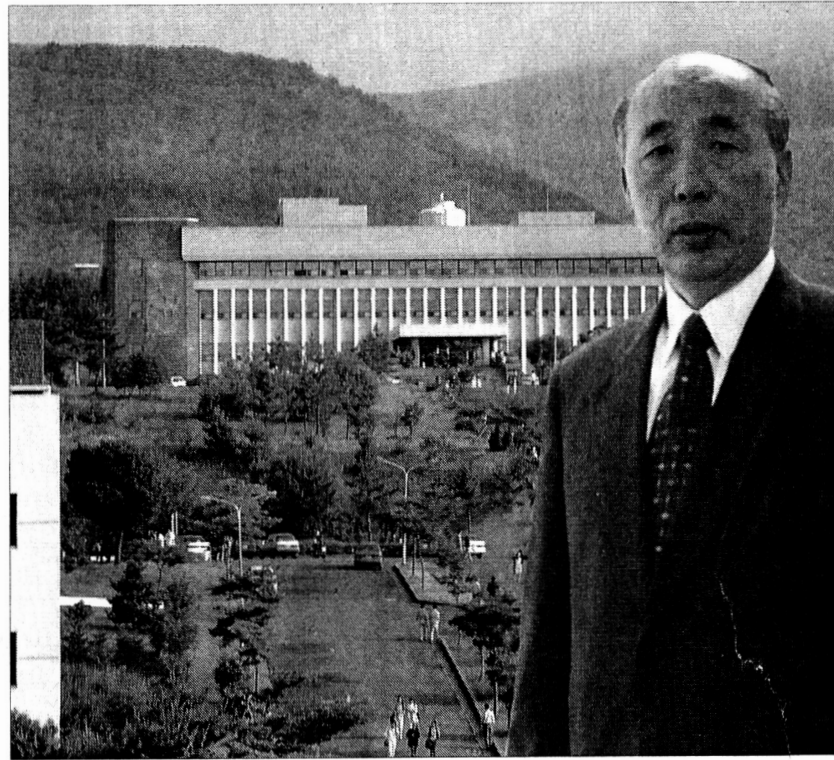
1. 연구기금 확충과 내실화
학술연구기금 확대 조성 교내 연구비 지원 강화와 연구기금 적극 유치
연구비 중앙관리제 개선 연구지원과 선정, 평가방법 합리적 기준 마련
2. 이공계 분야 연구수주 대폭 강화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지 조성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자발적 연구팀 지원체계 마련
ERC, SRC, RRC, BK21 등에 계속 지원 교섭력 발휘
3.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비 확충 및 융역사업 수주 강화
4. 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8년 주기 연구년제 실시 수업시간 경감
도서관 지원 시스템 개선 Post-Doc, 연구인력 활용
5. 각종 인센티브제의 활성화
우수 교수 연구장려금 지급
우수 평가기관 장려금 지원
6.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제공동연구, 방문, 회의참가, 국제학술회의개회 등에 계속 지원
외국대학과 학점상호인정제, 학생교류 활성화 지원 해외연수 기회확대
7. 도서관과 출판부의 도서구입과 출판지원 확대

V.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읍시다

1.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봉사활동, 학술행사, 초·중등 관련 행사 지원
2. 지역과 연계된 연구활동 강화
테크노파크 조성하고 국고투자연구소 유치 지역연구기금 확보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영재교육연구원 승격
3. 평생교육원 독립건물 조기 신축
4. 위탁교육의 활성화
각 기관 위탁교육 적극 유치 지원
외국어교육관, 전자계산소, 서구포 연수원, 중등교원연수원 적극 활용
5. 대학의 개방
캠퍼스 공원과 골프장 시설 확대와 주민 개방
도서관·전자계산소를 도민의 지식정보센터로 활용

VI.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적극 동참합시다

- 남북 협력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 역할 강화
평화연구소 유치 남·북·중·일 대학간 학술교류 추진
동북아 네트워크 연결 사업 주도적 역할



▲대학캠퍼스 전경과 함께